

합평, 점심시간 민원업무 휴무제 시행

내달 3일부터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업무중단
무인민원발급기·정부24 이용해 제증명 발급 가능

합평군이 7월 3일부터 '점심시간 휴무제'를 전면 시행한다. 합평군은 "군청 민원봉사과를 포함한 9개 읍·면 민원업무 처리를 점심시간인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중단한다"고 28일 밝혔다.

점심시간 휴무제는 민원업무 공무원의 휴게시간 보장과 근무 여건 개선을 통한 업무 효율성을 위해 추진한다.

합평군은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앞서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합평읍, 해보면 등

4곳에서 시범 운영을 했다. 민원인이 점심시간에 제증명을 발급할 수 있도록 무인민원발급기를 확대 설치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현수막 등을 활용해 홍보 활동을 했다.

합평군 관계자는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하며 지속적으로 불편사항을 보완하는 등 민원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합평군은 점심시간 휴무제 도입을 위해 합평군 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합평=김은희 기자

담양, 7월부터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운행

기본요금 2km 500원, 1km 추가 시 100원

담양군이 오는 7월 1일부터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확대하고 이용자 대기시간 지연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운영을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바우처 택시는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 이용대상자 중 비휠체어 교통약자(장애인, 65세 이상 노약자, 임신부 등)의 이동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특별교통수단이다.

이용 가능 시간인 오전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시내버스 요금(기본요금 2km 500원, 1km 추가 시 100원) 정도만 부담하면 관내 지역을 이동할 수 있다.

이용을 원하는 사람은 전남광역

이동지원센터(☎061-287-8341.5-7)로 문의해 보행상 장애가 있음을 증명하는 진단서나 소견서를 첨부해 이용자 등록을 해야 한다.

기존등록자나 회원등록을 마친 이용 희망자는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 전화(☎1899-1110) 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예약 후 이용할 수 있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바우처 택시가 도입되어 현재 운영 중인 장애인 콜택시와의 배차 분리를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담양=조승채 기자

장흥 '찾아가는 프렌즈게임랜드' 진행

오는 30일까지 4D VR 체험 게임버스 운영

장흥군은 27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쉼카카오게임즈 사회공헌 캠페인 '찾아가는 프렌즈게임랜드'를 장흥문화회관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한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되는 '찾아가는 프렌즈게임랜드' 행사에서는 4D VR(사차원 증강현실)을 체험할 수 있는 게임버스를 운영한다.

시각이 아닌 촉각을 이용한 점자 블록 프로그램이 이전과 동일하게 진행되며, 올해는 카카오프렌즈 캐릭터가 그려진 종이비행기를 접어 날리는 프로그램이 새로이 추가되어 어린이들의 관심을 사고 있다.

특히, 올해는 문화가 있는 날에 찾아가는 프렌즈게임랜드 행사를 개최하여 보다 뜻깊은 행사를 군민들에게 선사할 수 있게 됐다.

참여 어린이는 "작년에는 형과 누나들이 카카오 VR(증강현실) 버스를 이용하는 것을 보고만 있었지만, 올해는 직접 체험할 수 있게 되어 너무 기쁘다"며 활짝웃음을 지었다.

'찾아가는 프렌즈게임랜드' 행사는 쉼카카오게임즈의 주관으로 작년 전남 최초로 장흥군에서 개최되었으며, 지역에 구애 받지 않는 게임 문화 확산을 위해 적용 범위를 전국으로 확산 중이다. /장흥=임민기 기자

영광군 · (주)창억과 600억원 규모 투자협약 체결

묘량농공단지애 떡 제조공장 건립 투자 약속 쌀 소비 증진 · 농가 소득 증대 도움 등 기대

영광군은 28일 서울특별시 중구에 위치한 웨스틴조선 서울 호텔에 열린 2023 전라남도 투자유치 설명회 행사 중 떡 제조기업인 (주)창억대표 임철환과 600억원 규모의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수도권 소재 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전라남도 투자유치 여건 설명 및 홍보, 상담을 위해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영광군에 투자할 (주)창억을 비롯해 여수시, 광양시, 완도군에 총 2조원 가량을 투자하기로 약속한 5개 기업이 협약을 체결하여 눈길을 끌

었다. (주)창억은 광주광역시에 본사가 위치하고 나주시에서 공장을 가동 중인 떡 제조관련 우량기업으로서 이번 투자를 통해 현재 조성중인 묘량농공단지에 1만4천평, 600억원 규모의 공장을 설립하여 약 250여명의 고용을 창출할 예정이다.

또한, 영광군에서 생산한 쌀과 농산물을 적극 매입 및 사용할 계획으로 관내 쌀 소비를 증진하여 벼 재배 농가 소득증대에 도움을 주는 등 궁극적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영광군수는 "우리 군에 큰 규모의 투자를 약속해 주신 (주)창억 임철환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각 분야의 우량하고 건실한 기업이 투자하게 되면 관내 고용창출과 지

역경제 활성화에 큰 성장동력이 될 것이고, 더욱 더 발전하는 영광군이 되기 위해 앞으로도 (주)창억과 같은 우량한 기업을 투자유치하기 위해서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영광=서종민 기자

장성, 민선8기 공약 이행... 하반기부터 청소년 수당 지급

꿈키움바우처지원사업, 보건복지부 협의·장성군의회 조례 통과

장성군이 하반기부터 청소년 수당을 지급하는 '꿈키움바우처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꿈키움바우처지원사업은 9~13세 7만 원, 14~18세 10만 원을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포인트는 연 1회 지급하며 이·마음, 목욕, 예체능분야 학원, 서점, 문구, 안경점, 영화관, 공연장, 체육시설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군은 앞서 보건복지부 협의를 마친 데 이어 28일 청소년 꿈키움바우처조례가 장성군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가맹점 모집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지원을 시작할 방침이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민선8기 공약인 청소년 꿈키움바우처지원사업을 계획대로 시행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면서 "청소년 문화·취미활동 지

원, 학부모 양육 부담 경감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장성군은 삼계면에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장성 서부권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활동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동아리실, 체육활동실, 노래연습실, 댄스실, 카페 등을 설계할 계획이다. /장성=심재식 기자

구북구 화순군수 '하순 나눔 리더 1호' 가입



화순군은 지난 27일 구북구 화순군수가 220인의 나눔 리더 릴레이 캠페인 기간 중 화순지역 나눔 리더에 1호로 가입했다고 밝혔다.

나눔 리더는 지역사회의 개인 모금 활성화를 위해 2017년을 시작으로 1년 내 100만 원 이상 일시·약정한 개인 기부자를 모으기 위한 전남공동모금회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5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7개월간 나눔으로 전남을 이끄는 '220인의 나눔 리더 릴레이 캠페인'이 진행된다.

캠페인 기간 중 모금된 성금은 전남도 내 사회취약계층의 일상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우리 동네 복지기동대 사업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구북구 화순군수는 "기부분화를 선도하는 나눔 리더 캠페인에 동참할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한다. 이번 기부를 시작으로 따뜻한 나눔이 주변에 널리 퍼져 기부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화순군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화순=주용원 기자

나주, 장맛비 집중호우 피해 신속 복구 '총력'

윤병태 시장, 침수 피해 현장 점검... "추가 피해 최소화 사전 예찰 총력"

나주시가 장마 초입부터 시간당 최대 65mm에 달하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8일 나주시에 따르면 호우주의보가 발효된 지난 27일 오후 9시부터 이날 오전 9시까지 시까지 237.9mm의 많은 비가 내렸다.

전날 오후 9시 호우주의보 발효에 따라 비상 대기 중이던 배수펌프장, 하천배수문, 도로관리 근무자들이 비상근무에 들어갔다.

한 시간 뒤 호우경보로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이 가동되면서 부시장을 비롯한 20개 읍·면·동장과 전체 부서, 읍·면·동 비상근무 인력이 투입돼 상습 침수구역 현장 예찰 및 실시간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많은

비가 내리면서 농경지 및 도로 침수, 낙뢰로 인한 정전 등 피해 신고가 잇따랐다.

나주시는 일시적인 장마 소강상태를 기회 신속한 피해 복구에 나서고 있다. 이날 오전 9시까지 접수된 피해 현황에 따르면 14개 읍·면·동 지역 농경지(벼) 486ha가 침수됐다. 시는 현재 전체 부서, 읍·면·동 직원을 투입해 추가 침수 피해 조사와 시설물 복구를 진행 중이다.

부덕동과 세지면 지역에서는 전날 오후 11시 43분 낙뢰로 인해 주택 154세대에 정전이 발생했다. 한국전력공사에서는 정전 3시간 9분만인 익일 오전 2시 52분경 복구를 완료했다. 나주시청사 별관 및 본관 일부 건물, 봉황·다시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도 정전으로 통신장비 파손 등의 피해를 입었다. 도로 침수 및 토사 유출, 잡목 부러짐 등 현장 접수 민원 15건은 신속한 조치를 통해 전체 복구를 완료한 상태다.

윤병태 나주시장도 이날 오전 7시 침수 피해를 입은 노안면 동산마을을 시작으로 영산동 관정들, 삼영동 부영아파트 상습침수구역, 문평면 삼호들, 황포꽃배 선착장, 세지면 오리농가를 연이어 방문해 농가와 시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신속한 피해 복구를 지시했다.

피해 현장 점검 및 조사, 복구를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예정됐던 나주시의회 본회의 보충 질의답변 일정은 오후 2시로 연기됐다. /나주=조승준 기자

담양 고향사랑기부제

기부로 나누고 답례로 곱하고!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을 전하세요.
담양군 지역발전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란?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고향 등)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기부액의 30% 이내)을 받고, 지방자치단체는 모인 기부금을 **주민 복리 증진에 사용하는 제도**

대슬맑은 담양쌀

대슬맑은 담양한우

떡갈비

전통주

담양사랑 상품권

한과(약과)

쌀엿

장류

죽순

관광문화상품

방울토마토

사인머스켓

블루베리

단감

담양에 기부하시면 **고향의 마음이 담긴 정성 가득한 답례품**을 드립니다.

기부관련 문의 ☎ 061) 380-3217~3220